

/ 제13회 동곡상 시상식 주요 참석자 및 축하해주신분(무순) /

△최연희 DB Inc회장 △김남호 DB손해보험(주)부사장 △김정남 DB손해보험(주)대표이사 사장 △최문순 도지사 △권성동 도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선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이희종 동곡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민병희 도교육감 △전순표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유용태 대한민국헌정회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이재수 춘천시장 △이원규 춘천시의장 △함응문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정재호 민족증흥회장 △(재)성균관 이사장 △김중수 한림대 총장 △이환기 춘천교대 총장 △김숙자 배화여자대 총장 △이태운 DB생명 사장 △김광수 원주부시장 △한광석 강원대 부총장 △이한돈 강원대 명예교수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 △허인구 G1강원민방 사장 △박세호 강원지방경찰청 1부장 △원행 월정사 선덕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허영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 △이이재 춘천세무서장 △김기호 신한은행 강원본부장 △권기민 농협강원지역본부 부분부장 △이종호 광복회 도지부장 △박종인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 △전순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도회장 △최찬희 호반포럼회장 △한명옥 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선자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이사장 △정명자 한민족통일여성 도협의회장 △이재한 도예총회장 △김흥우 강원민예총 이사장 △김양수 도문인협회장 △김금분 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 △심삼만 강원일보 사진동우회장 △장태수 강원도민회 사무총장 △이미숙 도미술협회 부지회장 △김선배 춘천교대 총장 △진장철 강원대 명예교수 △김기덕 재단사업운영회장 △김승열 강원도민회 부회장 △김길소 전 강원일보 전무 △이영래 전 산림청장 △방재흥 전 도행정동우회 회장 △최준익 전 삼척군수 △조재린 전 강원일보 상임고문 △홍희표 전 국회의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김종화 강일언론인회장 △유운소 100세시대 편집인 △임병수 강일언론인회 △공병진 강일언론인회 △김기봉 강원여객자동차 사장 △안덕환 빌텍 사장 △김진춘 강원여객자동차부 사장 △김진현 강원여객자동차 상무 △전창범 전 양구군수 △정문교 울곡연구원장 △박기병 6·25 참전언론인회장 △김학철 극단 '산야' 대표 △최정부 도장애인협회 고문 △홍영숙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우족회장 △허대영 한서남궁역연구회장 △박흥수 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이영춘 한국문인협회 감사 △전상국 김유정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이필호 강원대 교수 △임기수 한국타이어 춘천대리점 대표 △김수연 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 대표 △DB그룹 임직원 일동

사 설

예견된 건설업 위기 SOC 확충 시급

-지역경제 파탄나지 않도록 도·정치권 국회 예산활동 강화해야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기관 시설공사 입찰액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액수만 3000억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전년(12조9218억원) 대비 2조8901억원(22.3%) 감소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달청에 등록된 도내 누적 시설공사입찰금액은 68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70억원보다 2931억원 줄었다. SOC사업이 줄면서 도내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기마저 연쇄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아우성이지만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부진과 지역경기 악화는 정부가 도 SOC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이미 예견됐다. 강원도의 올 한해 SOC 예산은 원주~제천 철도(1500억원), 포항~삼척 철도(1246억원), 춘천~속초 철도(100억원) 등 총 9501억원이었다. 지난해 도가 요구했던 강릉~제진철도와 제천~삼척고속도로, 춘천~철원고속도로가 제외되면서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깎인 것이다. 그러나 전체 SOC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지역구 민원을 챙기려는 영·호남 의원들이 밀실

에서 야합하면서 없던 예산이 생긴 것이다. 호남의원들이 이렇게 챙긴 예산이 3000억원, 영남은 3300억원이었다.

정부 SOC 예산이 축소되자 강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격한 책임공방을 벌였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은 집권 출발부터 사회간접자본의 감축기조를 나타냈고 강원도 SOC 예산만 직격탄을 맞았다”며 여당과 최문순 도정을 몰아붙였지만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다.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도가 내년 사업으로 요청한 SOC예산이 줄 줄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회 심의 일정이 남아있긴 하다. 그러나 현재의 기조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춘천~철원 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 제천~영월고속도로사업은 올해도 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도 SOC예산은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SOC사업이 배제되면서 도의 경기 전망이 그만큼 어두워진 것이다. 남북 평화분위기에 힘입어 기대했던 접경지역 SOC사업마저 불투명하다.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이 축소될 경우 그 결과는 뻔하다. 지역경기가 더 위축되기 전에 ‘쪽지예산’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도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교류·교육·교감, 강원종합건설업계 대변 경기활성화 앞장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강원도 건설사들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가 강원 건설경제의 도약을 위해 지역 건설사들의 경영난 예방 등 각종 지원에 나서는 등 업계의 가동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최근 건설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와 건설경영인 능력향상, 건설일자리 증진 등 지역건설사들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과의 업무교류와 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강원도 주요 건설 유관기관과 소통

건설협회 도회는 도내 주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해 SOC예산 확대의 필요성과 업계현안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도의회, 원주국토관리청 및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강원조달청,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등 각 기관과 해마다 1~4회 정도 간담회 갖는다. 이 자리를 통해 업계 현안사항과 회원사민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주요 발주처의 시설공사에 강원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 조정협약에 나서는 한편, 단 건설업종에 오류로 공사가 발주될 경우 종합공사업으로 정정하기 위한 협의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을 완화시키는 가교역할을 맡으면서 다수의 건설사들에게 입찰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도 올렸다.

>>>강원건설사 능력향상 연수사업

건설협회 도회는 도내 회원 건설사 경영인들의 능력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최고경영자 연수사업이 대표적이다.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향상과 국내외 선진기술공법 견학,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 증진을 위한 연수사업을 실시해 온 것이다.

한 예로 지난해 12월 도내 건설사들은 건설협회 도회를 통해 강원도와 자매결연한 일본 닛토리현을 공식 방문, 노가와 사토시 닛토리현 부지사 및 시모모토 아이치로 일본 닛토리현 건설협회회장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일본의 건설관련 사회보장 보험제도와 공사 입찰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과 도내 건설업체들이 최근 강원도청을 방문해 강원도 노후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위)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과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을 만나 건설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도내 주요 유관기관 간담회
SOC예산 확대 필요성 전달
다수 건설사 입찰기회 제공**

**최고경영자 연수사업 실시
선진 공사입찰제도 등 시찰
참가자 매년 증가 관심 제고**

**건설 관련 장학금 전달 비롯
비건설 관련 복지활동 꾸준
불법 건설사업 예방·근절활동**

**회원가입 촉진 가입 증가
외연 확대 위상 강화 성과**

제도, 지진에 대비한 설계 내용 등을 익히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연수사업이 실효소득을 거두면서 참가인원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5년 66명이던 참가인원은 2016년 87명으로, 지난해에는 11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참가신청인원 172명으로 해마다 지역 건설사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건설관련 사회공헌 및 교류의 장

건설협회 도회는 지역상생과 회원 건

설사들과의 교류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건설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회원자녀 및 건설관련 학과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회원사의 소속감은 물론, 자긍심 고취와 지역교육 발전 및 산학협력체계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매년 3000만원 예산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건설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 해마다 3000만원을 들여 비건설 관련 복지활동도 추진해 왔다. 어려운 이웃돕기와 장학재단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사업을 해 온 것으로 사회공동모금회와 매년 도내 6개 시군을 선정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회원시간 교류의 장도 꾸준히 마련해 오고 있다. 사랑나눔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통한 회원시간 교류의 장이다. 건설인재 육성 장학금 마련을 위한 행사로

2007년 이후 12회째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불법행위 근절

복지 외에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협회 도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림픽 입장권 275매를 구매했다. 구매입장권 전량을 필요한 회원사에 배부했으며 경기관람에도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강원지역 경제단체는 물론 건설협회 본회를 비롯한 사회 각급 기관에서도 입장권 구매 분위기가 조성되는 성과를 올렸다.

불법 건설사업 예방에도 나섰다. 건설협회 도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업종특종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8월 도내 18개 시군의 건축 인허가 부서를 대상으로 홍보 팸플릿을 배포했다. 지역 전통문화재 보존 관리사업도 추진했다. 건설협회 도회는 고성에 위치한 왕곡마을을 보존회와 함께 문화유산의 지속적 보존을 위해 1사1문화재 지킴이협약을 체결, 매년 후원금 지원 및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해마다 회원사 규모 확대 위상 정립

강원도내 종합건설업체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회원모집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내 종합건설업계에서 협회의 대표성 확립을 위한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회원가입 촉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건설협회 도회에 가입하는 건설사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17개사가 신규로 회원가입을 했으며 2016년에는 21개사, 지난해에는 22개사가 가입하는 등 매년 회원수가 늘고 있다. 올해는 이따기지만 16개사가 신규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건설협회 도회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건설협회 도회는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한 도내 건설인들이 우수 입상자로 낙점되는 성과를 비롯해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kado.net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공공공사 발주때 ‘단가 책정기준·적용요율 명시’ 의무화

(품셈·노임 등)

앞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공사 발주시 입찰공고에 품셈과 노임 등 주요 단가의 책정기준과 적용요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입찰(계약)금액 과소 책정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발주자의 공사비 부당삭감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저가경쟁을 유발하는 입·낙찰제도 개선 등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후속조치는 여전히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조달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부당한 원가산정 행위를 차단하고 계약금액 과소산정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업체의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상에 품셈과 노임 등 주요 단가의 책정기준과 적용요율 등의 명시를 의무화했다.

발주자가 예산에 맞춰 예정가격을 감액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찰금액 과소책정 때문에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수위도 낮췄다. 현재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허용사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계약자의 책임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지나치게 적은 입찰 금액에
계약 포기한 업체 제재 완화
공사비 부당삭감 감소 기대속
적정공사비 보장 여전히 미흡

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입·낙찰자의 권익구제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을 현행 70억 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정결과에 대한 발주자도 이행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조정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기관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기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고 소송발생 시 소송사실 및 결과도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자의 예가 과소책정에 따른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각종 계약분쟁으로 인한 계약자의 손실 및 행정적, 사회적 낭비요소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더해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예가 부당삭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발주자에 대한 제재장치도 필요하고 더불어 총사업비 협의나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개선책도 수반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해서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나 중심제 동점자 처리규정 등 입·낙찰제도별 개선방안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교류·교육·교감, 강원종합건설업계 대변 경기활성화 앞장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강원도 건설사들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가 강원 건설경제의 도약을 위해 지역 건설사들의 경영난 예방 등 각종 지원에 나서는 등 업계의 기동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최근 건설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와 건설경영인 능력향상, 건설일자리 증진 등 지역건설사들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과의 업무교류와 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강원도 주요 건설 유관기관과 소통
건설협회 도회는 도내 주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해 SOC예산 확대의 필요성과 업계현안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도의회, 원주국토관리청 및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강원조달청,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등 각 기관과 해마다 1~4회 정도 간담회 갖는다. 이 자리를 통해 업계 현안사항과 회원사 민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주요 발주처의 시설공사에 강원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 조정협약에 나서는 한편, 타 건설업종에 오류로 공사가 발주될 경우 종합공사업으로 정정하기 위한 협의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시키는 가교역할을 맡으면서 다수의 건설사들에게 입찰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도 올렸다.

▶▶▶강원건설사 능력향상 연수사업
건설협회 도회는 도내 회원 건설사 경영인들의 능력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고 경영자 연수사업이 대표적이다. 최고 경영자의 경영능력 향상과 국내의 선진기술공법 견학,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 증진을 위한 연수사업을 실시해 온 것이다.

한 예로 지난해 12월 도내 건설사들은 건설협회 도회를 통해 강원도와 자매결연한 일본 돗토리현을 공식 방문, 노가와 사토시 돗토리현 부지사사와 시모모토 아이치로 일본 돗토리현 건설협회회장



도내 주요 유관기관 간담회
SOC 예산 확대 필요성 전달
다수 건설사 입찰기회 제공

최고경영자 연수사업 실시
선진 공사입찰제도 등 시찰
참가자 매년 증가 관심 제고

건설 관련 장학금 전달 비롯
비건설 관련 복지활동도 꾸준
불법 건설사업 예방·근절활동

회원가입 촉진 가입 증가
외연 확대 위상 강화 성과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과 도내 건설업계들이 최근 강원도청을 방문해 강원도 노후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위)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과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을 만나 건설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제도, 지인에 대비한 설계 내용 등을 의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연수사업이 실효소득을 거두면서 참가인원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5년 66명이던 참가인원은 2016년 87명으로, 지난해에는 11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참가신청인원 172명으로 해마다 지역 건설사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건설관련 사회공헌 및 교류의장
건설협회 도회는 지역상생과 회원 건

설사들과의 교류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건설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회원자녀 및 건설관련 학과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회원사의 소속감은 물론, 자긍심 고취와 지역교육 발전 및 산학협력체계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매년 3000만원 예산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건설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 해마다 3000만원을 들여 비건설 관련 복지활동도 추진해 왔다. 어려운 이웃돕기와 장학재단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해 온 것으로 사회공동모금회와 매년 도내 6개 시군을 선정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회원사간 교류의 장도 꾸준히 마련해 오고 있다. 사랑나눔 회원친선 골프대회

2007년 이후 12회째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불법행위 근절
복지 외에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협회 도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림픽 입장권 275매를 구매했다. 구대한 입장권 전량을 필요할 회원사에 배부했으며 경기관람에도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강원지역 경제단체는 물론 건설협회 본회를 비롯한 사회 각급 기관에서도 입장권 구매 분위기가 조성되는 성과를 올렸다.

불법 건설사업 예방에도 나섰다. 건설협회 도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업등록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8월 도내 18개 시군의 건축인·허가 부서를 대상으로 홍보 팸플릿을 배포했다. 지역 전문문화재 보존 관리사업도 추진했다. 건설협회 도회는 고성에 위치한 왕곡마을 보존회와 함께 문화유산의 지속적 보존을 위해 1사1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체결, 매년 후원금 지원 및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해마다 회원사 규모 확대 위상 정립
강원도내 종합건설업체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회원모집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내 종합건설업계에서 협회의 대표 성취를 위한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회원 가입 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건설협회 도회에 가입하는 건설사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17개사가 신규회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21개사, 지난해에는 22개사가 가입하는 등 매년 회원수가 늘고 있다. 올해는 이달까지만 16개사가 신규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건설협회 도회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건설협회 도회는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설가능경기대회 참가한 도내 건설인들이 우수인상으로 낙점되는 성과를 비롯해 다방면의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회의실 강의실 세미나, 교육장소 외
기타사용 대관가능!

구비시설
연수용테이블 (2인석 x 12), 회의용테이블 (8인석 x 2)
빔프로젝트, 마이크, 기타 음향시설,
커피머신기 완비 (커피, 음료 구매 가능)

BARN LAB
F&B Consulting

대관문의 766-7100
원주시 관설동 1638(갈매길 126) 2층

원주시 강원도 보건복지부 원주시노년일자리지원사업 원주시니어클럽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시니어
원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사업단 동네방앗간/동네미용실/CU편의점
활동장소 해당 사업장
대상 만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
월 급여 월 36시간 근무시 27만원 문의 ☎ 033)764-1136

동네방앗간
모든 떡 일체 주문가능, 들/참기름 착유, 고춧가루방아

동네방앗간 사업단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기회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어릴적 할머니 손맛과 정성 그대로 안전하고 정직한 맛거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모든 수익금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할매초맛 원주시 지역로 1367(관설동) 동네방앗간
전화 033-763-1122
원주시니어클럽사무실 033)764-1136
주문·요청시 차량운행가능

박세영 가수(3집앨범) OPEN

박세영가수가 직접 운영하는 라이브카페

최저조와 최고의 음향시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BS1, MBC, 아이넷tv, 뉴스타가요소, 복지tv탐가요소, 라디오fm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뛰어난 가창력과 분위기가 있는 무대매너로 각종 행사 섭외 1순위

"사랑은 고무줄" 성인가요 차트코리아 100위내 진입

타이틀곡: 허성(3집)/사랑은 고무줄/도시로 간 여자/아니야 아니야
동해 아라리/여울 ✕ 여울 ◆ 금영노래방 ◆ 90223-
작사: 이현주/작곡: 김성경

위치: 동해시 천곡동 흥국생명 건물 앞 지하
행.사.문의 010-4901-6250